

보도자료

대한민국 최초로,
<주주-직원 공생 프로젝트:
Stockowner-Employee (SOE)
Partnership Project> 를 위한
연구사업이 시작합니다.

연구주관 기관: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중민재단)

이사장: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연구책임자: 숙명여대 경영학과 권순원 교수

❖ 추가 정보 문의

- 중민재단 한상진 이사장 02-875-8474
- 쌍용머티리얼주식회사 이영조 사장
- 숙명여대 경영학과 권순원 교수

대한민국 최초로 <주주-직원 공생 프로젝트: Stockowner-Employee (SOE) Partnership Project>를 위한 연구사업이 시작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갈등이 확산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공존을 지향하는 사회과학적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촉진하고자 2012년 1월 30일에 창립행사를 마친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이하 중민재단)이 2012년의 첫 번째 목적사업으로써 <주주-직원 공생 프로젝트: 한세희-쌍용머티리얼주식회사의 사례 연구>를 시작합니다.

3자 합의서 서명

2012년 3월 20일 중민재단 회의실에서 주주 한세희와 쌍용머티리얼주식회사 이영조 사장, 중민재단 한상진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주주-직원 공생 프로젝트>을 위한 연구사업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아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주주 한세희의 제안

주주 한세희는 쌍용머티리얼주식회사의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던 중 90만주를 2012년 3월 8일 장내에 매도하면서 얻은 차익이 사실은 쌍용머티리얼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인식으로 10만주를 사내복지기금에 증여했으며, 이에 더하여 10만주를 직원 개개인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공존을 지향하는 사회과학적 기초연구를 위해 설립된 중민재단에게 연구비의 기증과 함께 공평한 주식 증여 모델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프로젝트의 의의

이 프로젝트는 주식시장의 주주와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서로 무관한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 경제운영의 통상적인 틀을 넘어 양자의 관심을 매개하는 실험적, 선구적 의미를 갖는다. 그 출발점은 특정 회사의 주식을 장기 보유한 주주가 주식을 장내 매도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경우, 이것이 주주 개인의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회사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특히 주주가 직원 개개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은 분리된 두 세계를 직접 잇는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이 방식은 선행 모델이 없고 절

차가 복잡하여 희귀한 것처럼 보인다.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회사 이윤의 일부분을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하거나 우리사주제도로 이전하는 사례는 간혹 있지만, 기업을 경영하는 대주주가 주가 상승으로 얻은 차익을 직원과 나누는 전례는 거의 없다. 반대로 우리는 뉴욕 월가의 “점령하라” 운동이 보여주듯이,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의 이미지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경영과 무관한 “개미 투자자”가 주식의 증여로 직원들과 이익을 공유하려는 시도는 신선한 자극을 준다. 특히 직원들이 암암리에 가정하는 공평성, 정의의 기준을 사회과학적 분석으로 찾아내 이익을 공유하려는 시도는 중산층과 서민의 공존을 향한 의미 있는 전범이 될 수 있고 향후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자극하는 선구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연구의 수행

이런 전망으로 중민재단은 숙명여대 경영학과 권순원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을 구성하여 쌍용머티리얼주식회사 직원(280여명)이 생각하는 공평한 주식증여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직원들이 가정하는 공평성의 기준, 주식증여가 직원들의 의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주의 주식투자 및 사회적 역할,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인구사회적 기초변수 등에 국한될 것이며 주식증여의 공평성 모델을 찾는 최초의 조사와 증여 이후 2년 안에 4회 이내로 이루어질 추적 조사로 구성된다. 연구팀은 최초로 수집된 자료 분석에 의해 쌍용머티리얼 직원 개개인에게 증여될 주식의 몫을 포함한 연구보고서를 2012년 5월 말 경까지 중민재단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쌍용머티리얼의 협력

쌍용머티리얼주식회사 이영조 사장과 노동조합 대표 탁장희 위원장은 중민재단이 수행하는 주주-직원 공생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제공, 통신 등 다방면에서 연구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리서치의 협력

설문조사에 응하는 직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민재단은 설문지 전송과 수집의 과정을 사회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수행하기로 하였다.

주식증여와 그 이후

연구 결과를 중민재단이 주주 한세희에게 전달하면 주주는 20일 안에 10만주의 주식 가운데 쌍용머티리얼주식회사 직원 개개인의 몫으로 산출된 주식을 각자의 교보증권 주식통장으로 보내기로 합의 하였다. 증여 이후 이영조 사장은 직원들이 납부해야 할 10%의 세금을 직원들이 자진 납부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주-직원 공생 프로젝트 학술대회 개최

중민재단은 4회의 추적조사를 마친 이후, 축적된 조사결과의 분석과 함께 이 사례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함의를 집중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이 프로젝트는 상황과 쟁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는 사회정의와 공평성의 추상적 기준을 기업 종사자의 시각에서 경험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사회과학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며, 아울러 주주와 직원의 공생을 포함하여, 좋은 뜻은 있으나 방법과 절차가 불명료하여 실천을 하지 못한 주주들에게 실현 가능한 증여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중산층과 서민의 공존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실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